

장 지원

- 부산 동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재학 중
- 2018년 5급 공채 일반행정(전국)직 합격

I. 들어가며

합격을 위한 하나의 최선의 공부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수기 역시 수많은 방법중 하나를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I. 과목별 공부 방법 : 제1차시험

저의 경우 2017년 면접을 탈락하여 2018년 1차시험을 면제 받아 2018년 1차 시험에 기반한 정보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016년 1차 탈락이후 2017년 1차시험에서 90점대의 점수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겠습니다.

1. 헌법

2017년에 첫 도입된 헌법과목의 경우 문제의 구성이나 난이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7급 헌법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학원 강의의 경우 기본강의와 ox퀴즈강의 두 가지를 수강하였고, 기본서의 경우 꼼꼼히 2회독을 하였습니다. 별도의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7급 기출문제를 빠르게 풀고, 틀린 지문을 여러번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였고 80점대로 합격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2. PSAT

(1) 시험준비 전반

2017년 가을에 진행되는 하프모강을 실감으로 들으면서 1차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프모강의 경우 예습·복습 없이 수업만 충실히 듣고 그 외의 시간에는 2차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프모강이 끝난 이후에는 2차공부를 다시하였고, 겨울에 모강을 실감으로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모강을 들을 때에는 시험에는 매번 참석하되, 쉬는 시간에 틀린문제를 확인하고 해설은 선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강 복습을 하며 저녁에는 기출문제 스테디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스테디 방식은 언자/자상/상언 순으로 매일 풀어오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풀이방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해설하는 스테디였습니다. 기출문제의 경우 이미 세 번 이상 풀어본 상태였기 때문에 답이나 접근방법이 다 암기된 상태여서 95~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래 시험시간보다 10분정도 단축시켜서 한번 더 풀어보고, 접근방법에 대해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언어논리

언어논리의 경우 전략과목으로 생각했음에도 80점밖에 나오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난이도가 상승했음에도 92.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관리입니다. 먼저 접근방법 측면에서는 일치부합 문제·추론문제 등에서 소거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관리 측면에서는 한 문제당 2분을 할당해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과감하게 넘어갔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순서대

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20번 문제를 풀 때는 40분, 25번 문제를 풀 때는 50분으로 끝낼 수 있었고, 시간관리가 용이했습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의 경우 항상 가장 나오지 않는 과목이었고, 2017년에는 운이 좋게 난이도가 낮게 나와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해석 공부방법의 경우 특별한 것 없이 강사자료집으로 전반적인 접근방법을 익히고 기출문제·강사모강문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을 풀었습니다.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80점이 넘는 과목이어서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푸는 순서를 1-3-4-2로 풀어서 마지막에 퀴즈문제나 계산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치 부합 중 \neg \neg 조합으로 나오는 문제의 경우 순서대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장 판단하기 쉽고 판단하였을 때 선지가 많이 좁혀지는 보기 먼저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판단의 경우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실전과 같이 연습하는 것을 해보시고, 그 때의 자신의 상태를 예상하여 먹을 것을 가져가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5) 기타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PSAT의 경우 당일 컨디션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전날 일찍 자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당일에 언-자-상 순서로 10문제 정도를 시간 맞추어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짐을 싸고 바로 쉬었습니다. 두 번째로 맛있는 밥을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원래 다니던 고시식당 또는 본죽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가져갔었습니다. 2017년에는 아는 동생의 도움으로 38식당에서 도시락을 싸갔는데 개인적으로 맛있어서 하루종일 컨디션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에 저는 시험을 치면서 '이번에 떨어지면 1년 후에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시험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의고사에서도 늘 그랬듯이 오늘도 어렵겠지 뭐' 라고 마음먹은 2017년에 수월하게 접근했었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방법 : 제2차시험

1. 경제학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하지만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험기간이 상당히 김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 있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 연차가 쌓일수록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탈 이후 다시 준비하면서 저는 서승환 저 미시경제학과 정운찬 저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읽고, 연습문제를 풀면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3순환을 수강하지 않고 3순환 일정에 맞추어 교과서 연습문제를 풀면서 기출스터디를 병행하였고, 당시 오전 저녁을 합쳐 200점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학 정치학 기간에는

저녁에 스터디를 꾸려 3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 50점-100점의 답안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를 되돌아보면 문제를 풀면서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서브노트와 연습문제를 다시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보다 고득점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행정법

행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 암기,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입 이전에 행정법 전공 수업을 수강하였고, 진입 이후에는 가장 먼저 박균성교수님의 교과서와 정하중 교수님의 교과서를 꼼꼼히 1회독하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향후 행정법 공부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암기의 경우에는 암기장이나 암기스터디에 들기보다는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완성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2순환 3순환기간에 강사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박정훈 교수님의 사례집과 변시·사시·입시 기출문제를 5개년에서 10개년정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작성의 경우 행정법은 형식이나 목차보다는 흐름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백·글씨보다는 써야할 것을 다 쓰고, 문제제기부터 문제해결까지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답안지를 여러번쓰고 최고답안과 강사해설을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행정학

합격 이전에는 재미있는행정학이나 새행정학 한국행정학 등의 교과서를 한 번도 읽어본적 없는 상태로 수험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새행정학을 구매해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

고 이동호 선생님의 답안지 특강을 등록하여 답안지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안지 특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후 선생님의 2순환 3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동호 선생님의 3순환 강의의 경우에는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통문제가 나와 목차를 구성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많았고, 행정학 전반을 아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글을 쓰는 법을 배웠던 점이 행정학 뿐만 아니라 정치학 답안지를 쓰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의 경우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한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예비순환을 한번도 수강한 적 없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론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특히 2017년의 올슨의 집단행동딜레마 문제는 한번도 본적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김희철선생님의 편더먼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면탈 이후에 1차가 면제되어 시간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소홀히 했던 기초적인 이론과 정치사상에 대해 다시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순환기간에는 겨울에 한 번 보았던 예비순환·1순환 책을 빠른속도로 다시 보고 매일 100점(기출문제, 강제명강사님 3순환문제)씩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3순환 기간의 강사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강사 모의고사는 주제만 보는 정도로 참고하고, 기출문제와 대학모의고사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5. 정보체계론

처음 진입시에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공부할 양이 적다는 이유로 정보체계론을 선택했습니다. 정보체계론은 평상시에 준비하기 보다는 예비순환 또는 1순환에 간단한 내용을 숙지하고 3순환기간에 강사님이 요약해주는 중요한 내용과 최신이슈를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 합격자분의 의견에 따르면 정보체계론을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행정학스럽게 답안지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고득점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답안지 작성시 형식은 행정학과 유사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IV. 제3차시험-면접시험

1. 스터디 구성 및 사전준비

3차준비의 경우 학원/재학중인 학교/면접스터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면접스터디에서 준비합니다. 개인적으로 면접스터디에서 주된 활동을 하되 학교에서의 모의면접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면접설명회, 법률저널 면접설명회가 있습니다. 면접이 처음이신 분은 설명회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에 합격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자료정리

전체적인 면접이 그룹토의/직무역량/인성의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행정고시 면접의 경우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부처, 그리고 현안에 관한 질문이 빈출되기 때문에 최근 이슈에대

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터디 예비모임 이후 첫 시간에 자료정리를 위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첫 시간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그룹토의에서 활용해야 하는 100대 통계자료, 국가주요지표, 삶의 질 지표 등을 암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수치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집단토의

집단토의의 경우 주제를 주고 찬성·반대로 견해를 나누어 토의하는 것입니다. 찬반견해를 나누는 이후에는 합의와 정책대안 도출을 하여야 합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조 (6명)에서 무작위로 찬성견해와 반대견해를 지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5~6개정도 제시해줍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30분간 모두발언, 주장 및 논거, 반박할 내용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토론자(6명)과 면접관(6명) 앞에서 자유토의를 개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토의 시간에는 사회자 없이 토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렬별로 토의에 관한 규칙을 정해두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한다면 부담감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룹토의의 실력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4. 직무역량

직무역량은 개인발표(PT)와 직무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PT의 경우 현직 공무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

의 우수를 노리신다면 신경을 많이 쓰는게 좋습니다. PT 1문제, 직무 1문제가 질문으로 나옵니다. 집단토의와 마찬가지로 30분의 자료 검토시간·과제작성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PT작성의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속한 스터디원의 경우 여러번 반복연습하여 23분안에 PT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PT의 경우 정책문제를 주고 이에대한 추진배경/현황/문제점/정책대안/향후추진계획을 작성하여 7분이내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직무의 경우 직무상황을 준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PT와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능력·역량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인성

인성 질문의 경우 3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상황/공직가치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경험의 경우 응시자의 조직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질문합니다. 상황의 경우 어떠한 딜레마 상황을 주고 해결하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가치의 경우 애국심, 책임감, 공익 등의 가치에대한 가치관을 질문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30분의 답변작성시간을 가진 후 이동하게 됩니다.

인성면접의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예상질문 목록을 구하여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 정리를 통해 말해도 되는 경험과 안되는 경험을 분류하고, 그에 관련하여 느낀점 또는 공직에서의 활용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터디원들과 서로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V. 기타 생활

1. 스터디

고시촌이나 학교에서 학습을 하시는 경우 다양한 스터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자습스터디, 출책스터디, 답안지스터디, 복습스터디 등이 그 예입니다. 스터디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 공부하기에 의지가 부족하신 분, 공부 일정을 규칙적으로 하고싶으신 분은 충분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전에 잠이 많아 출책스터디를 했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답안지스터디의 경우에는 다른사람이 쓴 답안을 볼 수 있고 서로 다른 강사의 자료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2. 공부시간

저의 경우에는 공부시간을 측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7시 30분에 기상해서 집에 11시30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기 위해 앉아있다고 해서 집중을 온전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다른 생각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앉아있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항상 쉬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휴일에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 없이 폭취고 평일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다만, 고시촌에서 멀리 벗어나는 경우 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보다 힘들기 때문에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노는일은 미리 계획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과목 강의가 끝난 경우, 공휴일이라서 학원이 쉬는 경우 등 노는시간과 휴식시간이 확보 가능한 때에 약속을 잡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VI. 마치며

수기를 작성하면서 지난 수험생활을 돌아보니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로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행착오로 보이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험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이 모여 가까운 미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보다 합격을 더 기뻐하셨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